

진안군,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총력

인력중개 상황실 운영... 인력 지원 가능한 기관·단체와 연계 일손 지원

진안군은 14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말 농업정책과에 농촌일손돕기(인력중개) 상황실을 설치하고, 군청 실과소와 읍·면사무소,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일손이 절실한 농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령 농가, 소규모 영농, 질병 등으로 작기 영농이 어려운 농가로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농촌일손돕기 상황실에서 인력 지원이 가능한 기관·단체와 연계해 실질적인 일손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진안군은 지난 9일 진안읍과 백운면에서 발생한 강풍 피해 복구 현장을 시작으로 읍·면에서 관내 농가의 일손 부족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까지 일손돕기 계획을 이어갈 예정이며, 군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진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진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국인 중심의 농촌인력중개센터 4개소를 운영함으로써 봄철에 집중되는 수박, 고추, 상추 등의 농작업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57명을 6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수시 인력 배치 체계를 통해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춘섭 군수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계면, 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장수군 장계면은 '제35회 장계면민의 날'을 앞두고 지난 12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지역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김철수씨(산업공익장), 이희조씨(애향장)를 각각 '면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했다.

산업공익장에 선정된 김철수(67세, 원오동마을) 씨는 2005년도부터 토마토 양액재배를 도입해 선진 농법을 확산시키고 변온자동온조절기, CO₂ 발생기, 3단 보온커튼 등 첨단 재배시설 도입을 통해 장수군 토마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김씨는 각종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 새로운 재배 기술을 익히고 이웃



산업공익장 김철수 애향장 이희조

토마토 작목반에 선진농법을 전파하는 등 농업 후계자 양성과 농가 소득 향상에 힘써왔다.

애향장에 선정된 이희조(70세, 서율시) 씨는 재경장계면향우회, 재경장계

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원으로서 고향과의 연대를 지속해왔으며 20년 전부터 '재경 서변마을 향우회'를 조직해 선후배간 화합에 기여해왔다.

또한 이씨는 재경장수군민회 임원으로 10년간 장계면의 발전과 단합을 위해 봉사했으며 2024년 재경 서삼면과 재경 장계면 간 자매결연 성사에도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창호 면장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헌신한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숨은 공로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6월 10일 개최되는 '제35회 장계면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흑색 대추방울토마토 실증 재배 나서

무주군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흑색 대추방울토마토' 실증 재배에 나섰다.

이번 실증 재배는 향후 스마트농업 기술 교육과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파종해 9월 절목료 1,100주를 정식하며 본격적인 재배를 시작했다.

현재 토마토는 개화 23회방까지 전개

된 상태로 생장 속도는 외기 평균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생육 밸런스 관리에 주력하며, 과도한 증산 작용을 막기 위해 차광스크린을 활용한 생육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유진광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연구개발팀장은 “이번 실증은 정밀한 환경제어와 체계적인 생육 관리



를 바탕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 실증 결과를 공유하며 농가 소득증대와 스마트농업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산물 유통 촉진·가격안정 도모

무주군, 자율수매제도·지원 한도 상한제 추진... 23일까지 신청

무주군이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참여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는 농산물 유통 촉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매 시 전라 품목에 한해 가격을 정하고 원물을 매입할 때 손실률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전라 품목(10개)은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사인머스켓), △생전마,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북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곰팡식 기획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한 농산물 등이다.

과민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 농촌육성팀장은 “올해부터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이익률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면 사업수행자인 농협의 자부담률이 30%”라며 “자가선별 유통지원비 단가 산출 방법도 변경돼 선별 포장비, 운송비, 하차비 등 수수료 합계의 25%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20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2023년 5년 연장)했으며 65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기반으로,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자가 선별유통지원(관매가격 연동 차등제 적용), △농산물순회수집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907농가에서 총 9,289톤의 농산물에 대해 55억여 원의 사업 지원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 집중안전 현장점검

군민 생명·재산 보호 위해 다중이용시설 중심 실시

장수군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진행되며 장수누리파크 발물놀이장, 장수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장, 한누리전당 소공연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현장점검에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함께 건축, 전기, 소방, 산업안전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최 군수는 분야별 세부 점검 항목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 공사장 내 안

전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일부 결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했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군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작은 위험요소도 간과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영농정착 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진안군은 신규농업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5 영농정착기술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진안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신규 농업인과 청년농 등 영농 교육에 관심 있는 진안군민이다.

신청은 오는 6월 4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6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8회(4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진안군 귀농귀촌 정책 소개, 작목별 선도농장 견학, 농기계 실습, 토양관리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운영된다.

노금선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농업인과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현실적인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농업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063-430-8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청소년의 달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장수군은 지난 13일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이해 학교주변에 위치한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신·변종 업소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점검 △청소년 담배·주류 등 판매하는 행위 단속 △유해환경 예방 스티커 부착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주류 판매 식당에 대해서는 '19세 미만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지 부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